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ttachment Injury and State-Trait Anxiety on the Marital Adjustment of Battered Women

심희정*, 서미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Hee Jeong Shim(cs8825@hanmail.net)*, Mia Seo(miaseo@dankook.ac.kr)**

요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총 220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이었으며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5개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거주 쉼터, 7개의 상담센터, 3개의 종교 관련 기관으로 총 15개의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통계, ANOVA test,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은 부부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결혼상태, 자녀수, 폭력기간,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이 부부 적응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부부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0.0%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을 감소시키고 부부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중심어 : | 가정폭력 | 애착손상 | 상태불안 | 특성불안 | 부부 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achment injury and state-trait anxiety on marital adjustment of battered women. The participants were total 220 battered women who have experiences with violence from their spous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 to May 6 in 2014 from five shelters for battered women, seven counseling centers, and three shelters run by various religion. SPSS 18.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est,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done. As study results, attachment injury, state and trait anxiety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Marriage status, number of children, duration of violence, attachment injury,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explain marital adjustment. The explanation power was 60.0%. This study results will be use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for enhancement of marital adjustment whereas to decrease attachment injury and state-trait anxiety.

■ keyword : | Domestic Violence | Attachment Injury | State Anxiety | Trait Anxiety | Marital Adjustment |

* 본 논문은 심희정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접수일자 : 2014년 12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서미아, e-mail : miaseo@dankook.ac.kr

1. 서론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1980년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1]. 1997년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근절되어야 할 4대 사회악 중의 하나가 되었다[2]. 2013년 여성가족부 보고에 따르면 부부간 폭력 발생률이 45.5%이며 이중 신체적 폭력이 7.3%, 정서적 폭력이 37.2%, 경제적 폭력이 5.3%, 성 학대가 5.4%, 방임이 27.3%를 차지하고 있다[3]. 이러한 결과는 미국 16.1%, 일본 17.0%에 비하여 매우 높은 발생 비율이다. 이처럼 부부폭력의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의하면 가정폭력쉼터 퇴소여성 2,900여명 중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중'은 48.0%, 별거는 22.1%, 이혼소송중은 9.1%였다[4].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퇴소 시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남편과의 애정' '남편의 변화 가능성'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이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심리적 불안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정으로 복귀하여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폭력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서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6]. 부부폭력에서 대부분 여성이 폭력의 피해자임을 생각할 때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의 선진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와 남성 지배를 지지하는 가부장적 규범의 반영[7], 남성의 여성에 대한 힘의 우월주의[8], 부부폭력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가정 내의 개인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이다[9].

그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가정폭력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10] 가정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

들은 배우자의 폭력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관심행동이 자 사랑의 표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으로 자신이 폭력의 원인 제공자라는 낮은 자아존중감[11], 자신은 가해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고 언젠가는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비현실적 믿음[12],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모습[13]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이 부부 적응이라는 부부간의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간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문제로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그 중 부부간 애착문제와 불안은 대표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애착손상은 '부부간 유대감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결정적 순간에 배우자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애착손상과 일반적인 부부간 갈등과 다른 점은 애착손상을 입은 배우자가 손상을 당한 사건과 상처로 인한 분노와 고통을 잊지 못한다는 점이다[14]. 이러한 경험은 극심한 우울이나 적대감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저해한다[15].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폭력은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 폭력 후 심리적 회복이 없으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폭력 후 피해여성의 심리적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며 극심한 불안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16]. 불안은 국내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85.3%가 호소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17],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 장애 중 하나이다.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하고 위협이나 위협과 관련된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18]. 불안은 사람들을 회피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막고 부부 적응을 어렵게 한다[19]. Spielberger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 불안으로 구분하였다[20].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상황에 따른 일시적 불안으로 시간과 장면에 따라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선천적 기질로서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특징적 불안을 의미한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

기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상태불안도 높는데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특성불안 수준이 상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1].

부부 적응은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보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적인 과정이다[22]. Spanier 등은 부부 적응을 질적인 속성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속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23].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부간 의견 불일치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조정되어지고 다양한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부부 적응이란 적응이 완결된 어떤 시점이 아닌 부부가 결혼관계에서 일치와 만족감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을 경험한 이후 부부는 심리적 손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폭력 피해여성의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상태-특성 불안, 부부 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상태-특성 불안, 부부 적응 간에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 적응

부부 적응이란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순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이자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24].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가 가지는 개인적인 특성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접근하고 반응하는 안정적인 결합을 이루게 된다. 부부가 상호 공통된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될 때 부부는 안정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 부부 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부부 친밀성, 신뢰, 의사소통, 적절한 역할, 원활한 의사소통, 만족스러운 성관계 등이 있다[25]. 부부 적응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Spanier 는 부부관계는 적응적 또는 비적응적 상태가 아니라 부부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이고 과정적인 상태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하는 동적인 상태에서 부부는 친밀감과 만족감 같은 질적인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26]. 즉, 부부 적응은 결혼관계를 유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과적 상태가 아니라 부부관계이 모든 과정동안 일어나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상호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부부 적응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는 부부가 가정을 해체하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에 부부만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여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부부 적응 영향요인

2.1 가정폭력과 부부 적응

폭력과 적응은 인간의 삶의 양 극단에 있는 개념이다. 사회는 폭력을 근절하고 없애져야 할 악으로 규정한다. 폭력 자체는 근절되어야만 할 요소이지만 폭력으로 인한 영향력은 회복과 적응을 과제로 안고 있는 요소이다. 적응이란 인간 삶의 변화를 전제를 한다. 부부간의 관계는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 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손상은 부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부부관계의 마지막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배우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를 질문했을 때 연구 대상자의 48.8%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고 노력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을 하여 일시적 별거(5.6%)나 이혼(1.6%)에 비하여 부부

관계를 지속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10]. 부부 적응은 기능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부부 상호간의 차이점, 부부간의 결합, 부부간의 긴장감을 다루고 서로 합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2.2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

부부는 애착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이다.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유대적 관계로서 전 생애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27]. 부부가 상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애착욕구가 충족되는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은 행복하고 안정된 부부 적응을 촉진하는 요소인데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정서는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8].

부부간의 폭력은 애착욕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데 이를 ‘애착손상’이라 하며 ‘애착손상은 관계로부터 입은 상처 혹은 외상을 말한다[29]. 부부간 폭력은 애착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이다. 애착손상을 입은 배우자는 심리적 외상을 당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나타낸다. 즉, 부부 관계의 불안이 증가되고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다[30]. 또한 상처 경험에 대한 반복적 회상과 재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우자에 대한 회피와 무감각이 나타나고[31], 높은 불안으로 인하여 부부 친밀감이 저해된다[29].

폭력이 부부간의 애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서적 폭력만으로도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우울, 불안, 공포감 등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고[32], 공포감으로 자존감 결여와 무기력에 빠지는 등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3].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들은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부 친밀감을 저해하는 원인들이 된다. 애착손상은 부부 불화를 유발하고 나아가 비효율적 의사소통과 관계 단절을 초래한다[34]. 배우자 폭력으로 애착손상을 경험한 여성은 배우자로부터 위로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못하며 이

는 부부간의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35].

2.3 불안과 부부 적응

Spielberger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였다[20]. 상태불안은 일시적 감정 상태로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반면, 특성불안은 타고난 것으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기질적 차원의 불안을 의미한다[36].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성불안은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성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태불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37].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불안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폭력의 강도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장애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증상이 심각해지는데 두려움, 초조함,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포함하여 무기력과 심한 우울, 불안과 자살사고 등을 나타내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8][39]. 개인병원이나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의 일차기관에 방문하는 여성 1,8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배우자를 32배나 더 두려워하였으며, 배우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61%가 심각한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다[40].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불안이 전문적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즉, 애착요인으로서의 애착손상과 심리적요인으로서의 상태-특성 불안은 부부간의 체계적 요인인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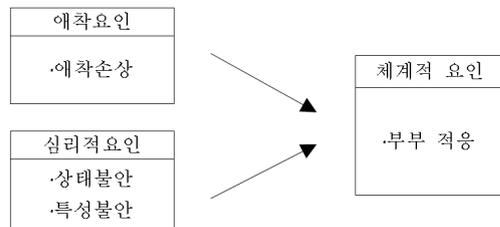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에 소재한 피해여성 쉼터 5개, 개인 상담센터 7개 및 종교관련 기관 3개의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승인을 위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장 승인을 얻었다. 대상자가 설문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또한 설명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1세 이상의 기혼여성으로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였다. 기관장의 연구승인 이후 연구 참여를 동의한 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첨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시행되었다. 수거된 질문지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30부를 제외하고 총 22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애착손상 척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Battle 등이 제작한 Target Complaints Discomfort Box Scale[41]을 Millikin[42]이 수정한 AIM(Attachment Injury Measure)을 본 연구팀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애착손상 관련 내용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하였다. 즉, 애착손상 척도는 부부의 애착손상 사건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매우 심각하다'의 1점에서 '아주 약간이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모든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착손

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이었다.

3.2 상태-특성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36] 김정택[43]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2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태불안은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침착하다' '나는 울적하다' 등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type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은 '나는 긴장되어 있다' '나는 불안하다' 등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type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상태불안은 Cronbach's alpha=.89, 특성불안은 Cronbach's alpha=.95였다.

3.3 부부 적응 척도

대상자의 부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 [23]가 개발한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이민식, 김중술이 번안한 도구[44]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부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규명된 도구로서 다양한 연구에서 안정성있게 사용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부부 일치성 15문항, 부부 만족도 10문항, 부부 응집력 5문항, 애정표현 2문항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30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늘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type으로 평정하며 성관계와 애정표현에 대한 2문항은 '그렇다' 1점과 '그렇지 않다'의 2점으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32점에서 1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폭력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 test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에서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인구학적 특성과 폭력관련 특성 변인은 더미 변수화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

1.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41-50세가 107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가 57명(25.9%), 51-65세가 52명(23.6%), 30세 이하는 4명(1.8%)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96명(43.6%), 고졸이 92명(41.8%), 중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이 각각 16명(7.3%)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25년 이하가 84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하 70명(31.8%), 5년 이하가 25명(11.4%), 25년 이상이 41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는 134명(60.9%)이었고 하지 않는 경우는 86명(39.1%)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126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3명(24.1%), 3명이상이 27명(12.3%), 없음이 14명(6.4%)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부부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F=9.24, p=.001), 자녀 수(F=4.48, p=.002), 맞벌이(F=5.50,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를 통한 사후검정 결과 학력과 자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이 대학교, 대

학원 졸업인 집단에 비해 부부 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녀수에 따른 집단 간 부부 적응에 차이에서는 자녀가 1명인 집단이 자녀가 2명인 집단에 비해 부부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 (N=220)

특성	구분	M±SD	F	p	Scheffe
연령	20-30	2.24±0.60	.69	.60	
	31-40	2.40±0.76			
	41-50	2.56±0.67			
	51-65	2.50±0.75			
학력	중졸 ^a	2.08±0.48	9.24	.001***	a,b(c,d)
	고졸 ^b	2.30±0.66			
	대졸 ^c	2.71±0.73			
	대학원 이상 ^d	2.08±0.48			
결혼기간	1개월-5년	2.31±0.58	.99	.40	
	5년 - 15년	2.46±0.74			
	15년-25년	2.57±0.70			
	25년이상	2.56±0.74			
자녀수	없음 ^a	2.49±0.57	4.48	.002**	b(c)
	1명 ^b	2.19±0.72			
	2명 ^c	2.64±0.66			
	3명이상	2.42±0.80			
맞벌이	예	2.63±0.61	5.50	.005*	
	아니오	2.43±0.80			

*p<.05 **p<.01 ***p<.001

1.2 폭력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

폭력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폭력기간은 1년 이하가 97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54명(24.5%), 10년 미만인 26명(11.8%), 10년 이상이 43명(19.5%)으로 나타났다. 폭력이유는 ‘배우자 성격’이 82명(37.3%), ‘배우자 음주’가 29명(13.2%), ‘본인문제’, ‘시택과의 갈등’, ‘경제문제’가 각각 22명(1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자녀문제는 11명(5.0%)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이 126명(5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이 63명(28.6%),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학대’가 각각 9명(4.1%)으로 나타났다.

폭력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부부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폭력기간(F=40.14, p=.001), 폭력이유(F=10.47, p=.001), 폭력유형(F=11.7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기간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는 폭력기간이 1년 이하인 집단이 5년 이하,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각 집단보다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이유에 따른

집단 간 사후비교검정 결과 본인문제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2.96점으로 시집과의 갈등, 배우자의 성격, 의처증, 배우자의 음주문제인 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폭력 유형과 폭력 후유증에서도 부부 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Scheffe test를 통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폭력유형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가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에 비해 부부 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폭력 후유증에서는 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기타 후유증이 있는 경우보다 부부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폭력관련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 (N=220)

특성	구분	M±SD	F	p	Scheffe
폭력기간	1년이하 ^a	2.98±0.53	40.14	.001***	a)b,c,d
	5년이하 ^b	2.31±0.60			
	10년미만 ^c	2.00±0.53			
	10년이상 ^d	2.02±0.64			
폭력이유	본인 문제 ^e	2.96±0.44	10.47	.001***	a)b,c,d,h)e,f,g,(i
	시댁 갈등 ^b	2.80±0.77			
	친정 갈등 ^c	2.88±0.09			
	배우자 성격 ^d	2.31±0.73			
	의처증 ^e	1.72±0.45			
	배우자음주 ^f	2.10±0.46			
	경제 문제 ^g	2.62±0.57			
	자녀 문제 ^h	2.81±0.41			
	기타 ⁱ	3.21±0.40			
폭력유형	신체적 폭력 ^a	2.02±0.65	11.76	.001***	a(b,c
	언어적 폭력 ^b	2.71±0.64			
	정서적 폭력 ^c	2.86±0.32			
	경제적 학대 ^d	2.23±0.60			
	기타 폭력 ^e	2.82±0.77			
폭력 후유증	정신적 ^a	2.46±0.70	4.46	.005**	a,c(d
	신체적 ^b	2.56±0.69			
	경제적 ^c	2.27±0.81			
	기타 ^d	3.29±0.35			

*p<.05 **p<.01 ***p<.001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애착손상, 상태-특성불안, 부부 적응에 관한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애착손상의 경우 3.09(SD=1.11)로 응답자의 애착손상의 평균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상태불안 2.50(SD=0.51), 특성불안 2.43(SD=0.55), 부부 적응의 평균점수는 2.50(SD=0.71)으로 중간점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변수	범위	M±SD	왜도	첨도
애착손상	1.00-5.00	3.09±1.11	-.21	-.79
상태불안	1.20-4.90	2.50±0.51	0.45	1.75
특성불안	1.00-4.00	2.43±0.55	0.33	-.09
부부 적응	1.16-3.78	2.50±0.71	-.167	-1.02

3.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과 부부 적응과의 상관관계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과 부부 적응과의 관계에서 애착손상(r=-.31, p<.01), 상태불안(r=-.58, p<.01), 특성불안(r=-.60, p<.01)은 모두 부부 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애착손상, 상태-특성 불안, 부부 적응의 상관관계

변수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	부부 적응
애착손상	1.00			
상태불안	.13	1.00		
특성불안	.12	.88**	1.00	
부부 적응	-.31**	-.58**	-.60**	1.00

**p<.01

4.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ANOVA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던 인구학적 특성 변인, 즉 학력, 결혼 상태, 자녀수, 맞벌이 여부와 폭력관련 특성 변인, 즉 폭력기간, 폭력이유, 폭력후유증, 그리고 주요변인인 애착손상 및 상태불안 그리고 특성불안을 독립변인으로, 부부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력, 결혼 상태, 자녀수, 맞벌이여부, 폭력기간, 폭력이유, 폭력후유증은 더미 변수화 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결혼 상태는 결혼유지를 기준으로, 자녀수는 2명이상을 기준으로, 맞벌이 여부는 '하고 있다'를 기준으로, 폭력기간은 1년 이하를 기준으로, 폭력이유는 배우자 성격 을 기준으로, 폭력 후유증은 정신적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는 .211-.98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18-.4.745로 나타나 기준치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위한 Durbin-Watson은 1.70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beta=.063, p=.186$), 맞벌이($\beta=.033, p=.471$), 폭력 후유증($\beta=.002, p=.960$)은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혼상태, 자녀수, 폭력기간 및 애착손상과 상태불안 그리고 특성불안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결혼지($\beta=.220, p=.001$)를 하는 경우, 자녀수 2명($\beta=.095, p=.031$)인 경우 부부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F	p
	(상수)	3.761		16.875	.001***
부부 적응	학력-대졸이상 ^a	.089	.063	1.33	.186
	결혼상태-결혼유지 ^b	.350	.220	4.56	.001***
	자녀-2명이상 ^c	.212	.095	2.17	.031*
	맞벌이-한다 ^d	.047	.033	.722	.471
	폭력기간-1년이하 ^e	.428	.301	6.02	.001***
	폭력이유-배우자성격 ^f	-.091	-.063	-1.42	.157
	폭력후유증-정신적 ^g	.004	.002	.050	.960
	애착손상	-.094	-.147	-3.19	.002**
	상태불안	-.302	-.218	-2.34	.019*
특성불안	-.277	-.217	-2.30	.022*	

R² =.618, Adjusted R² =.600, F=33.04, p<.001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a) 학력- 대졸이하 b) 결혼상태- 이혼(사별, 별거, 동거) c) 자녀- 2명이하 (d) 맞벌이- 하지않음(시간제) e)폭력기간- 5년 이하, 10년 이하, 11년 이상 f) 폭력이유- 본인문제, 시집갈등, 친정갈등, 의처증, 음주, 경제, 자녀, 성문제 g) 폭력후유증- 신체적, 경제적.

또한 폭력기간에서는 폭력 1년 이하($\beta=.301, p=.001$)인 경우에는 부부 적응이 높았다. 본 연구의 변인인 애착손상($\beta=-.147, p=.002$), 상태불안($\beta=-.218, p=.019$), 특성불안($\beta=-.217, p=.022$)은 부부 적응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

불안이 증가할수록 부부 적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의 부부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0.0%였다[표 5].

IV. 논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총 15개의 가정폭력 관련 센터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2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상태, 자녀수, 폭력기간,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부부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0.0%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학력, 결혼상태, 자녀의 수, 맞벌이가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학력에 따른 부부 적응의 차이에서는 교육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인 대상자가 대학교, 대학원 졸업인 대상자에 비해 부부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 폭력 발생률이 높고 부부 적응도 낮다는 연구결과와[45] 일치한다. 자녀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의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가 1명인 경우보다 부부 적응이 높게 나왔다. 이는 정상래(2012)의 연구결과[46]와 맥락을 같이 하며, 자녀의 수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송두리(2011) 연구결과와는[47]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녀의 수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부간 불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경험하거나 자녀에 대한 의무감과 헌신을 통하여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맞벌이 여부의 경우에는 ‘일하고 있다’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부부 적응이 높았다. 이 결과는 자신의 일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생기면서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48]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폭력관련 특성 변인에서는 폭력기간, 폭력이유, 폭력유형, 폭력후유증이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폭력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부부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폭력기간이 1년 이하인 집단이 5년 이하,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집단보다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 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지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적응과 부부만족도가 폭력기간이 더 오래된 집단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도[49] 같은 맥락이다. 폭력이유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는 시집과의 갈등, 배우자 성격,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인해 폭력이 유발된 경우 본인문제로 인해 폭력이 유발된 경우보다 부부 적응이 낮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이유로서 남편중심의 결혼관행, 시댁에 대한 여성의 의무감, 남성위주의 가치관 속에서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인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다[50].

또한 폭력 후유증에 따른 집단 간 부부 적응의 차이에서는 정신적 후유증과 경제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 신체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보다 부부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의 결과 받게 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51]. 정신적 후유증의 결과 부부 적응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면증 등을 가지게 되고[52] 이는 장기간 지속된다는 보고를 뒷받침한다. 경제적 후유증은 대부분 피해여성들이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배우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조차 피해여성에게 주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요인이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상태-특성 불안과 부부 적응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 모두 부부 적응과 유의한 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불안

을 비롯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53] 이는 특성불안이 높은 피해여성은 직접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도 위협을 느끼는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54], 폭력 환경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상태불안이 높아진다고 한 보고[53]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애착손상은 부부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손상으로 상처를 입은 여성은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 신뢰가 무너지고, 부부 불화를 극심하게 확대시키고, 부부 신뢰감과 친밀감에 심각한 제한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5]. 부부란 서로 안전기지가 되어 위로와 격려, 지지를 제공해 주는 관계이다. 부부 간 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손상은 안전기지가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된다.

넷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가정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기 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녀교육'등의 이유로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부부 적응이 높다는[56]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처음 폭력을 당할 때는 배우자 없이 혼자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들면서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폭력의 의미도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도 잘못이 있음을 인식하고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결혼유지와 부부 적응을 돕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수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상래(2012)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는데[46]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불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경험하거나 자녀에 대한 의무감과 헌신을 통하여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폭력기간에서는 1년 이하인 경우가 5년 이하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부부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기간이 짧을수록 부부 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지 6개월 이내에 해당하

는 경우, 부부 적응과 부부만족도가 폭력기간이 오래된 집단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49]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애착손상, 상태불안, 특성불안은 부부 적응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착손상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낮았다. 애착손상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부정적 정서가 강해진다[42] 따라서 상처를 입은 피해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과 의사소통의 부재로 친밀감이 약해지며[14] 부정적 상호작용 고리에 얽매어 부부갈등, 부부불화가 극심해져 결국 부부 적응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불안 역시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유발되는 상태불안은 부부 적응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57]. 불안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폭력과 같이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더욱더 심각한 상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 특성불안도 부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불안이 부부 적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58] 일치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여성 중 특성불안이 높은 경우, 처한 상황을 대처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행동 경향성을 보인다[59]. 이러한 경향성은 배우자와의 적응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부부 적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비록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수가 220명이어서 전국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에 그쳐서 폭력의 반복성이나 시간경과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는 분석할 수 없었던 한계점도 가진다. 셋째, 애착손상 척도는 한국어 버전이 없어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점도 가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폭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부부 적응을 높이는 요인들이었다. 연구의 주요변인 중 애착손상,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은 부부 적응을 모두 유의하게 낮추는 변인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부부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60.0%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폭력기간은 부부 적응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폭력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 적응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폭력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사전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온 여성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둘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부부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대상자의 불안을 조절하고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부부상담이 제공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이현숙, 정춘숙,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 [2] <http://www.police.go.kr>
- [3]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13.
- [4]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 [5] 강희숙, "가정폭력쉼터 퇴소여성의 가정복귀 성공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1호, pp.137-152, 2009.
- [6] 이철호, "가정폭력과 인권", *한국콘텐츠 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4권, 제1호, pp.360-363, 2006.
- [7] 김해성,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선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김태중,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 김영만, *한성대학교 행정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

- 점 및 방지방법 연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혜숙,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3권, 제3호, pp.611-636, 2004.
- [11] 윤경애, *가정폭력 피해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여성쉼터입소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2] 이은정,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거취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3] 손연주,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 연구 : 사타이 가족치료 모델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 존중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14] L. Greenberg, S. Warwar, and W. Malcolm, "Emotion-focused couples therapy and the facilitation of forgiven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36, No.1, pp.28-42, 2010.
- [15] J. A. Makinen and S. M. Johnson, "Resolving attachment injuries in couples using emotionally focused therapy: steps toward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4, No.6, pp.1055-1064, 2006.
- [16] S. R. Tramayne,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risk factor for PTSD in female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A meta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2012.
- [17] 이경혜, 이광옥, 최정숙, 김수지, "아내구타 예방 및 대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7권, 제4호, pp.560-578, 2001.
- [18] 원호택, 권석만, 박현순, 신현균, "불안장애 환자가 나타내는 사고내용의 특성", 심리과학, 제5권, 제1호, pp.1-12, 1996.
- [19] J. J. Russell, D. S. Moskowitz, D. C. Zuroff, B. G. Pinard, and S. N. Young, "Anxiety, emotional security and the interpersonal behavior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Vol.41, pp.545-554, 2011.
- [20] C. Spielberger,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21] J. Y. Lau, T. C. Eley, and J. Stevenson, "Examining the State-Trait anxiety relationship: A behavioural genetic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4, No.1, pp.19-27, 2006.
- [22] 한성심, *부모교육*, 공동체, 2008.
- [23] G. B. Spanier and C. L. Cole,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Vol.6, pp.121-146, 1976.
- [24] B. N. Adams,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 1980.
- [25] 양명숙, 이혜선,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 적응에 대한 연구,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pp.431-445, 2011.
- [26] G. B. Spanier,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Vol.38, pp.15-28, 1976.
- [27]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III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Pub, 1982.
- [28] 서미아, "중년기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긍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343-354, 2012.
- [29] S. M. Johnson,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Brunner-Routledge Pub, 2004.
- [30] 박성덕, 이우경,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8.
- [31] B. A. van der Kolk, and A. C. McFarlane, The black hole of trauma, In B. A. van der Kolk, A. C. McFarlane, L. Weisaeth, (Eds.)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 on mind, body, and society, pp.3-23, Guilford Pub, 1996.
- [32] 정운경,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pp.185-209, 2010.
- [33] 박경옥,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4] R. Kobak and C. Hazan, "Attachment in marriage: Th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pp.861-869, 1991.
- [35] A. N. Schore, *Affect regul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self*,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Pub, 1994.
- [36] C. Spielberger, R. L. Gorsuch, and R. E. Lushen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Pub, 1970.
- [37] 계은주, *특성불안과 우울수준에 따른 자아방어기제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졸업논문, 2001.
- [38] 조영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우울, 불안 감소를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9] 박을순, *가정폭력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0] F. Bradley, M. Smith, J. Long, and T. O'Dowd, "Reported frequency of domestic violence: cross sectional survey of women attending general practice," *British Journal of Medicine*, Vol.324, pp.1-5, 2002.
- [41] C. C. Battle, S. D. Imber, R. Hoehn-Saric, A. R. Stone, E. R. Nash, and J. D. Frank, "Target complaints as criteria of improve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20, pp.184-192, 1966.
- [42] J. W. Millikin, *Resolving attachment injuries in couples using emotionally focused therapy : A process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Virginia, 2000.
- [43]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Spielberger의 STAI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44] 이민식, 김중술, "부부 적응(Dyadic Adjustment Scale)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5권, 제1호, pp.129-140, 1995.
- [45] 현진희, *폭력행동 감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 집단 프로그램의 과정분석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46] 정상래, *가정폭력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졸업논문, 2012.
- [47] 송두리,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8] 전미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사회성에 관한 질적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9] 박애경,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인지행동모델적용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50] 박순향,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가정복귀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1개 상담소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51] R. Bozorg-Omid, *Counselors and domestic violence: Training, competence, practice and knowledge*, Idaho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6.
- [52] A. Marais, P. J. de Villiers, A. T. Möller, and D. J. Stein, "Domestic violence in patients visiting general practitioners-prevalence, phenomenology,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outhfrican Medical Journal*, Vol.89, No.6, pp.635-640, 1999.
- [53] 조경희,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 여*

성의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54] 이선주, 특성 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55] 김정화, 애착손상을 경험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애착손상해결모델의 적용 : 용서과정과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6] 문혜숙, “가정폭력 실태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1호, 2000.
- [57] C. Dehle and R. L. Weiss, "Associations between anxiety and marital adjus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136, No.3, pp.328-338, 2002.
- [58] 함진선, 이장한, “특질 불안 경향자의 위협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연구: 안구운동 추적장비를 이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권, 제31호, pp.355-371, 2012.
- [59] C. S. Carver, M. F. Scheier, and J. K. Weintraub,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6, pp.267-283, 1989.

서미아(Mia Seo)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정신간호학 박사
- 2008년 9월 :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정신건강, 부부애착, 정서중심치료

저자 소개

심희정(Hee-Jeong Shim)

준회원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석사
- 2012년 7월 : 성남시 분당구 아띠샘 부부상담센터 상담사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가정폭력, 여성건강